

## 한마당21, 「건축정보전2001」개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국내 최초의 건축·건설 전문기획사인 (주)한마당21은 건축정보관련업체를 대상으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우리협회 아키텍트갤러리에서「건축정보전2001」을 개최한다. 건축사와 직접 연결하여 참가사의 홍보·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며, 건축관련 새기술 및 새정보를 건축사에게 신속히 전달하게 될 이번 전시는 Off-line(우리협회 전시관/아키텍트갤러리)전시와 On-line(우리협회 홈페이지 사이버전시관)전시로 나뉘어 진행되며, On-line전시는 오는 8월 2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주)한마당21에서는 앞으로 매월 2회 테마별건축기획전(건축교육전, 건축벤처전 등)을 준비중에 있다. 문의: 02-702-1871

## 제19회 서울특별시건축상

2월 28일까지 접수

준공건축물부문과 야간경관조명부문에 나뉘어 시상되는 올해 「서울시 건축상」 작품을 공모한다. 준공건축물 부문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내에 서울시 관할구역내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된 모든 건축물을, 야간경관조명부문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외부 경관조명이 설치된 서울시 관할구역안의 모든 경관조명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응모작품의 접수는 2월 28일까지이며, 시상은 5월 3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갤러리에서 있을 예정이다. 시상식이 끝난 후 6월 5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수상작 전시가 있을 예정이다. 문의: 02-3707-8252,

www.metro.seoul.kr

## 국민대, 목조건축디자인센터

5개교육과정 수강신청

국민대학교 목조건축디자인센터에서는 2001학년도 교육생을 모집한다. 목조건축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총 5개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문의: 02-2006-6212, www.wooddesign.or.kr

- 제3회목조건축전문지도자과정(1년): 정원30명, 3월 9일입학
- 제11기 목조건축설계기술교실(12주): 정원36명, 2월 24일 개강
- 제1기 가구디자인창업전문과정(단학기): 정원 16명, 3월 7일 개강

- 목조건축설계실습단기특별과정: 정원20명, 4월개강
- 목조건축 시공실습단기특별과정: 정원20명, 4월개강

## 일부대학 건축학과 5년제로

2002년 신입생부터

서울대, 한양대, 경기대, 명지대, 홍익대 등 일부대학의 건축학과 학부과정이 오는 2002년 신입생부터 5년으로 연장, 적용된다. 교육부는 최근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2학년도부터 5년제 건축학과 학부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대학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10개 대학 건축학과 중 5년제 학부제 도입을 희망하는 대학은 학칙을 바꿔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됐으며, 이 중 서울대, 한양대, 경기대, 명지대, 홍익대 등의 학교가 내년 건축학과 신입생을 5년제로 모집할 예정이다.

## 건교부,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

설비기준규칙개정안 확정

건교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신축건축물에 대한 단열기준을 종전보다 20%이상 강화하고, 단열조치대상을 기존 4개 부위에서 13개 부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한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피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1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개정안을 법제처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중부지방에서 거실외벽에 단열재를 설치할 때 50mm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60mm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단열기준 적용부위를 공동주택의 축벽, 지붕 등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와 간접 면하는 경우(계단실형 공동주택에서 계단실과 가구사이의 벽) 및 바닥의 난방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공동주택은 층간 열손실방지를 위해 각 층간에도 단열조치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본지 98 쪽 참조)

##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제한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 의결

앞으로 주거지역과 일정한 거리 이내의 상업지역에서는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이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내의 무분별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시·군·구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의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일반숙박시설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카지노, 무도장 등의 위락시설용도의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라도 녹지, 공원, 지형지물 등 완

충지대가 있어 주거지역과 차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한 매장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도로법에 의한 점도구역 및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등에는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설치제한 지역을 명확히 했다. 이와함께 사설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해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면적은 가족묘지의 경우 100㎡, 종종·문중묘지는 1천㎡를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정했다. 개정안은 개인납골묘는 10㎡, 가족납골묘는 30㎡, 종종·문중납골묘는 100㎡,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묘는 5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 경관관리지침 제정

경관관련 규제 강화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2일 준농림지 등 비도시지역과 산지, 구릉지에서 산보다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경관관리지침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관관리지침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비도시지역인 준농림지나 산지, 구릉지 등에는 별도의 통합된 지침없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규정을 정해 적용해 왔다. 새지침에 따르면 건축물은 산정상보다 높게 지을 수 없도

록 하고, 개발사업부지도 산지락에서 표고 200미터 이하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지목이 산지나 구릉지에 짓는 건축물은 5층이하(20미터)로 하되 스카이라인과 주변경관을 해칠 경우 층고를 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은 80%, 건폐율은 25%로 정했다. 또 토지의 형질변경은 경사도가 20도 미만이어야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부지의 20~50%는 산림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고적, 고찰, 문중묘역 주변과 기암괴석이 있는 계곡이나 해안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건물을 지을 경우 경관관리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지침은 주변산세와 지평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스카이라인을 규제하는 한편 송전탑은 산그늘지역에 배치해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 지침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일단 지자체들이 이 지침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법제처 심의 중인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 관련 시행령과 규칙에 이를 반영해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 한샘, 제1회 국제인테리어 공모전

동과 서를 넘어서는 디자인을 주제로

종합가구 인테리어 업체인 (주)한샘에서 제1회 국제인테리어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동과 서를 넘어서는 디자인(Design beyond East & West)'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국적, 성별, 연령, 직업, 전공, 팀구성 여부 등에 제한이 없으며, 평면설계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가구 및

소품디자인 부문에 응모할 수 있다. 모든 출품작은 컴퓨터파일로 제작하여 첨부파일을 통해 이메일로 오는 7월 16일(월)부터 19일(목)까지 접수를 하면 된다. 도면은 AutoCAD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캔한 도면, 투시도 및 랜더링은 이미지 포맷(PDF 또는 JPEG), 크기(640×480pixel), 해상도(72~100dpi)에 맞추어야 한다. 제작 리포트는 영문 MS Word 또는 호환 S/W로 작성(800단어내외)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건축, 인테리어디자인, 가구 및 제품디자인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되며, 심사위원 명단은 이번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대상에게는 약 2천2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문의: 공모전사무국 02-590-3472, E-mail yish@hanssem.co.kr, www.hanssem.com

### 건설연구정보센터, 2001학년도 1학기 가상강의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수강신청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재단 특성화 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된 건설연구정보센터(CRIC)에서 건축관련 7개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의 강의를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접할 수 있는 2001학년도 1학기 가상강의가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수강신청은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이며, 교수진은 다음과 같다.

- 건축이론 및 설계 / 현대건축의 계보학 / 김광현
- 건축역사 / 한국건축사2 / 전봉희
- 건축계획 / 주택 및 단지계획 / 강인호
- 건축환경 및 설비 / 건축열환경계획

- / 송승영
  - 건축시공 및 재료 / 건설사업공정관리 / 이현수
  - 건축전산 / 건축CAD의 기초 / 김성아
  - 건축법규 / 건축법 이해 / 윤혁경
- 문의 : <http://www.cric.or.kr>

### 제23회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 발표

현암사(권문성작) 등 7작품 선정

제23회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이 발표됐다. 이번 심사는 김종성(서울건축,위원장), 김병현(장건축), 방철린(인토건축), 유원재(다건축), 이은영(한양대)씨가 맡았다. 협회상을 받은 7작품외에 특별상으로 초평건축상에는 김정철(정림건축)씨가 선정됐으며, 아천건축상에는 영월구인현(정기용/기용건축)이, 그리고 엄덕문건축상에는 웰컴시티(승효상/이로재건축)가 각각 선정됐다.

#### 건축가협회상 수상작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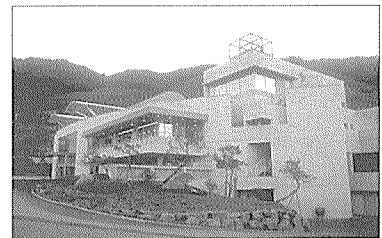
| 작 품 명                  | 건 축 가   | 건 축 주  | 시 공 회 사               |
|------------------------|---|--|-----------------------|
| 도시개발공사<br>거여지구 3단지 아파트 |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br>이성관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br>시장 도명정                         | 자유종합건설(주)<br>대표 정희식   |
| MULTI-BOX HOUSE        | (주)건축사사무소 초석<br>정일교   | 최주연  | 그린주택건설<br>시장 장순용      |
| 불보건설기계 코리아<br>성북동 사택   | (주)테제 건축사사무소<br>유태용   | (주)불보건설기계코리아<br>Eric Nielson President<br>&CEO | 신주택<br>대표 심 완         |
| 비전힐스 골프<br>클럽하우스       | (주)맥건축<br>곽재환   | (주)비전힐스<br>시장 임태수                              | (주)동인건설<br>대표이사 소민석   |
| 인사아트센터                 | (주)테트라 건축사사무소+<br>Wilmotte & Associates<br>임상관+ Jean-Michel<br>Wilmotte | 인사아트센터<br>대표 이호재                               | 희훈종합건설(주)<br>대표이사 문계실 |
| 정토사 무량수전               | 이도건축<br>김개천   | 정토사<br>해광스님                                    | (주)정안건설<br>시장 박용수     |
| 현암사                    | Atelier 17<br>권문성   | 현암사<br>시장 조근태                                  | (주)제효<br>시장 이백화       |



인사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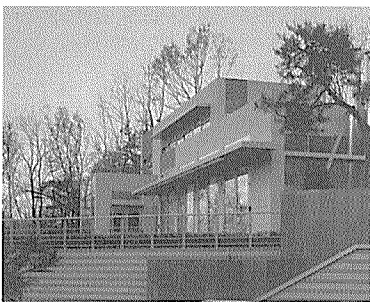
정토사 무량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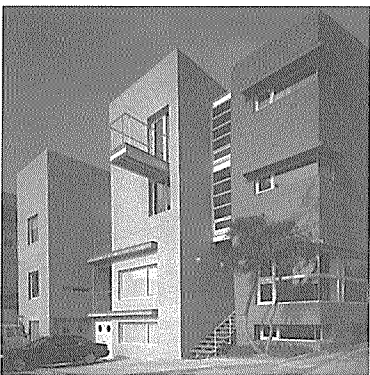
비전힐스 골프 클럽하우스



도시개발공사 거여지구 3단지 아파트



풀보건설기계 코리아 성북동 사택



현암사



MULTI-BOX HOUSE

## 심사후기

김종성

금년 심사에서는 자천 50작품, 타천 27작품, 심사위원 추천 작품들을 토대로 제출된 자료와 기 출판된 기사를 다섯 위원들이 평가, 진지한 의견 교환과 자료검토를 통하여 답사 심사 대상 작품을 선 발하였다. 작품선정의 기준은 건축적 창의성, 우리 건축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념의 제시와 그 완성도로 정리할 수 있다. 아마도 3년 전 외환위기의 여파인지, 금년에는 일곱 최우수 작품을 선택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작품 수가 적었고, 제출 및 출판된 자료에서 관심을 자아내 는 작품들이 경우에는 그 실체가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2001년의 일곱 최우수 작품을 보면 주택이 2작품, 이례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한 작품, 기업본사 사옥, 스포츠 여가 시설, 불교 법당, 도 심 문화시설이 각기 한 작품 씩이다. 작가들을 살펴보면, 신인 작가를 여러 명 발굴한 것이 성과이 고, 중견작가이면서 그 동안 수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건축가를 몇 명 선발한 것 역시 금년도 의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곽재환의 비전힐스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는 동서 방향으로 구릉지를 잘 이용하여 만들어낸 노출 콘크리트의 건축이 전반적으로 조형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 (軸)상의 진입레벨(리셉션 카운터가 배치된 있음)이 골프 코스의 경관을 최대한 인입하고 있지 않 은 점과, 조형적으로 위계가 높아 보이는 아연도 동판을 입힌 바렐 볼트의 매스가 배후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권문성의 현암사 사옥은 기존 주택을 부분 개축하며 인접 대지에 신축부분이 얼굴이 되는 호감이 가는 건축으로, 대로변에서 한 켠 들어가 있는 작은 입자의 이웃 건 물들과 스케일을 잘 조화시키고 있다. 평면, 입면이 곡선으로 구성된 신축부분의 매스를 적삼목으 로 마감한 것도 주택가의 분위기를 잘 읽은 디자인 수법이라 평가된다. 김개천의 담양 정토사 법당은 전통양식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시대의 사찰을 창작해 내려는 건축주와 작가의 의지가 돋보이는 건축으로서, 전면의 저수지 수면이 법당에 앉았을 때에 격자무늬 창 밖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배 치한 것과, 콘크리트조 긴 변의 앞과 뒤가 모두 열릴 수 있는 격자창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건축적 수단으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작품이다. 앞으로 건설될 주차장에서 법당으로 진입하는 의전적 외부공간이 한층 더 정토사의 종교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유태용의 성북동 사택은 건축주의 가족구성에 요구되는 일상생활의 사적공간과 사회활동에 요구되는 사교(social)공간을 계획한 특수해의 작품으로 모든 공간에서 경관이 내부로 흡인되도록 평면이 짜여진 것이 돋보인다. 경사진 진입도로에서 폐쇄적으로 읽혀지는 얼굴이 약점으로 지적되었으나, 완성도가 높고 디테일, 재료의 선택 등이 높은 수준에 달한 주택작품이다. 이성관의 거여지구 3단지 아파트는 서울시 도시 개발공사의 진취적 개발 전략에 부응하여 건축가가 창의력을 발휘한 좋은 사례로서, 보편적인 배치 계획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낮은 매스의 배열에 직교하는 고층부를 접합함으로써 다양하고 신선한 외부공간을 만들어낸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인접 아파트 단지의 불합리한 민원으로 부분, 부분 설 계의도가 희석된 것이 우리사회의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불행한 현상이다. 정일교의 멀티박스하우 스는 일산 신도시 단독 주택단지의 국적없는 건물들 틈에 투철한 창작의지로 정방형 평면의 주택을 만들어낸 작품으로서 그 실험적 접근 방법이 높게 평가되었다. 정방형의 형태결정주의에서 오는, 삶을 영위하는 아늑한 "집" 이라기 보다는 "전시실" 같은 느낌과, 종류가 많아 보이는 여러 재료의 병치 내지는 시각적 경합이 이 작품이 남기는 과제로 지적된다. Jean-Michel Wilmotte 사와 임 상관/테트라건축의 인사 가나 아트센터는 아직도 많은 한옥이 남아있는 관훈동 길의 서쪽에 좁은 얼굴과 안으로 연결된 필지의 T자형 부지를 잘 이용하여 높은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인사동 거리의 스케일과 텍스처에 조화되는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지하층에서 6층까지 조금씩 다른 분위기의 전 시/판매 공간을 구성하며, 동쪽을 내다보는 테라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호감을 준다. 심사 위원들 은 공공성을 지닌 대규모 건축물에서도 한국 건축의 오늘을 대표하는 작품이 없을까 광범위하게 찾아보았으나, 이번 해에는 일곱의 최우수 작품에 포함된 작품이 대부분 프라이빗 섹터의 소규모 건 축인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울러, 매년 그 해의 최우수작품을 발탁한다는 건축가협회의 취지 는 이해하나, 지난 13개월 내에 준공/사용된 건물로 대상을 국한하는 규정이 건축작품을 평가하는 데에는 좀 편협하게 느껴지며, 후보 작품의 자격을 2년 또는 3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의 발전적 변경을 제안한다.